

건조 주의보: 대전, 세종, 충북(청주·옥천·영동·충주·제천·진천·단양·증평), 충남(천안·금산)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내가 가면 길이 된다” 한국 다이빙 희망, 우하람 ‘값진 4위’

입력 2021.08.03 (21:13) | 수정 2021.08.03 (21:22) 뉴스 9

□

♡

↶

🖨

+

가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코로나19 통합뉴스룸

한국 다이빙 새 역사



KBS

뉴스



한국 야구 내일 일본과 준결승…
영웅 계보 잇는다!

[앵커]

도쿄 올림픽 소식입니다.

우하람 선수가 한국 다이빙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3m 스프링보드에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가장 낮은 12위로 결승에 진출한 우하람.

그러나 결승 스프링보드에 오른 우하람은 예선과는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연기로 2차 시기까지 5위.

제보

재난포털

ON AIR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 19대
보다 3%p ↑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코로나19 현황



28.22

Ultimate Game Changer

대통령선거

-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6시 현재 75.7%…19대
보다 3%p ↑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돌볼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
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우하람은 3차 시기에 첫 번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계멘트 : "첫 번째 난도 높은 거예요. 점프 좋아요. 잘 뒀습니다. 아 좋아요! 네 잘했습니다!"]

앞으로 4바퀴 반을 도는 난도 3.8의 기술로 12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4차 시기에서 3위를 1.80점 차로 추격한 우하람.

5차 시기가 아쉬웠습니다.

입수 동작에서 흔들려 6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끝내 3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우하람은 6차 시기 합계 481.85점으로 12명 가운데 4위에 올랐습니다.

[우하람/다이빙 국가대표 : "올림픽에서 4위 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우하람은 18살이던 5년 전 리우에서 10m 플랫폼 1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이빙 사상 첫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오륜마크와 파도를 새기며 결의를 다진 우하람은 도쿄에서 역대 최고인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우하람/다이빙 국가대표 : "올림픽 메달 따는 게 제 운동 목표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서. 올림픽 메달 딸 때까지는 계속 참가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우하람은 오는 6일 시작하는 10미터 플랫폼에 출전합니다.

메달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우하람의 값진 도전은 한국 다이빙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조완기

KBS는 방송 외에도 올림픽 특집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올림픽 경기들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경기 생중계 바로가기 <https://tokyo2020.kbs.co.kr/live>

Ultimate Game Changer
29.22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강재훈 기자 bahn@kbs.co.kr

강재훈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더보기



도쿄올림픽 망명 전 벨라루스 육상선수, 메달 판매해 기부



김치찌개로 만든 태국 태권도 금메달



[인터뷰] 우하람 “매일 150번 다이빙…파리에션 반드시 메달 땀다”



“좋은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의 마음으로”…‘명품해설자’ 송민의 ‘인생론?’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대…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검게 타 버린 ‘송이버섯’ 주산지…올가을 ‘금송이’ 될까

울진·삼척 산불 옛새패…전체 진화율 70%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중국 매제,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